

1930년대, 식민지 근대의 불모성과 여성

- 오장환의 시를 중심으로

김진희

국문초록

시문학사에서 오장환은 1930년대 식민주본주의 하에서 타락하고 부패해 가는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을 전통과 현대, 도시와 문명이라는 테마를 통해 구체적으로 비판한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수용하면서 특히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오장환이 타락한 도시문명과 부패한 현실에 기생하면서 자신의 육체와 성을 팔며 생존을 영위해 가는 여성의 삶을 문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당대 현실을 불모화되어 가는 여성의 육체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역시 그런 현실에 놓인 여성의 불우한 삶을 시화(詩化)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장환의 시에 등장하는 여성의 인물 유형에 주목하면서, 여성의 삶이 내포하는 당대의 현실과 시인의 형상화 방식을 논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불우한 여성의 삶을 통해 시인이 강조하려는 시적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규명하고 있다.

그 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장환의 시는 첫째, 유교적 권위와 도덕에 의해 희생당하는 여성들의 삶에 관한 비판적인 시를 발표함으로써 명분보다 소중한 여성의 인권을 강조한다. 둘째, 식민주본주의의 도시문명 속에서 상품화되는 여성의 성과 육체를 통해 물화된 인간관계와 윤락 여성의 비참한 삶의 현장을 보여준다. 셋째는 생명력을 상실한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 당대 조선 현실의 불모성을 환기시킨다.

결론적으로 오장환은 이런 여성들의 삶을 통해 일제 강점하에서의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전망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생명력의 소진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그는 이런 시적 작업을 통해 여성의 **풍요로움**이 상징하는, 진정한 생명성과 미래에의 전망을 희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장환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문제적인 현실 중 하나로 여성 육체와 성의 착취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카프(KAPF)의 해산 이후 모더니즘과 순수문학의 경향 속에서 여성이 처한 문제적 현실이 시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은 문학사적으로 새로이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주요어: 오장환, 1930년대, 도시문명, 식민지근대, 식민지여성, 불모성, 매춘 여성, 육체, 성

1. 들어가는 말

1930년대 시문학사에서 오장환은 일제 강점과 근대화라는 부침 속에 놓인 조선의 현실을 전통과 현대, 도시와 문명이라는 테마를 통해 구체적이고도 비판적으로 **시화함으로써** 뚜렷한 시적 성취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
- 1) 김기림, 「오장환 시집 『성벽』을 읽고」(조선일보, 1937.9.18).
 이봉구, 「『성벽』 시절의 장환, 『성벽』(재판) (이문각, 1947).
 임 화, 「시단의 신세대」, (조선일보, 1938.12.23~25).
 백 철, 『신문학사조사』(백양당, 1947) pp.352~54.
 최두석, 「오장환의 시적 편력과 진보주의」, 『오장환진집 2』(창작과 비평사, 1989).
 박호영, 「오장환 시의 모더니즘적 특성」, 『강릉대 인문학보』, 제 9호 (1990).
 조병춘, 「오장환의 시세계 연구」, 『문학 속의 서울』,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백문사, 1994).
 박민수, 「오장환 시의 현대성」, 『현대시 사상』, 제 25호 (고려원, 1995).
 조해옥, 「근대인의 불안과 허무의식 - 오장환의 「성벽」과 「헌사」를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제 22호 (1997.12).
 김면수, 「오장환 시의 「근대성」 연구」, (인하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오성호, 「『성벽』에서 「붉은 산」까지의 거리」, 『민족문학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4).

이는 그가 근대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 하에서 파행적인 근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당대 조선의 현실을 빠르게 체득하고, 또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 형상화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오장환이 문제삼는 당대의 현실은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드러난다. 그를 수식하는 말로 늘 '퇴폐'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음은 그가 어느 시인보다도 30년대 도시의 타락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는 식민 도시에서 전개되는 현대문명의 황폐성, 추악성, 폭력성과 군중의 고독감과 처절한 곤궁함 등을 시적 제재와 주제로 삼고 있다.

모더니즘 시인들이 도시의 불빛 속에서 다소의 감상과 멋스러움을 발견하고 있다면, 오장환에게 도시는 물질문명으로써의 충격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가져다 준 타락과 퇴폐의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포스터', '술집', '도둑', '아편', '매음', '순경', '영화관', '당구', '마작구락부', '도박촌' 등은 근대적 기호로 사회적인 뉘와 관련된 대상으로 의미화된다.

식민자본주의 하에서 타락하고 부패해 가는 현대 사회의 병리 현상을 읽어내는 그의 시에서 특히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타락한 도시 문명, 부패한 현실 안에서 육체와 성을 팔면서 생존을 영위해 나가는 여성의 삶을 문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몰락하고 타락해 가는 식민지 도시문명의 극단에서 그는 썩어가는 여성의 육체를 보고 있다. 때문에 그의 시는 당대 현실을 불모화되어 가는 여성의 육체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역시 그런 현실에 놓인 여성의 불우한 삶의 모습을 시화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자면 식민지 조선과 여성은 일제라는 제국주의적 권력에 의해 주변화되고 소외된 타자로서 쉽게 비유의 고리를 찾을 수 있게

박운우, 「오장환 시 연구 : 비판적 인식의 변모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김경숙, 「오장환 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된다.²⁾ 즉 식민지인(the colonized)이라는 용어를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대로 문자 그대로의 뜻을 초월해서 “여성, 억압받고 종속되어 있는 하층민, 소수인종들”로 확대시킨다면 정치적 식민지와 여성의 삶은 등가에 놓이게 된다. 오장환은 당대 조선의 현실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침묵 당하고 억압 받고 있으며, 이런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식민지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주목하는 여성은 주로 자신의 성을 매개로 생존을 영위하는 매춘부들이다. 그는 기생, 웨이트리스, 매음부, 흥등녀 등을 통해 식민자본주의 하에서의 비참한 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외양은 현대적 문물의 세례로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식민지 자본주의, 당대 조선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는 삶의 조건이 열악하게 바뀌는 와중에 놓여 있는 하층 여성들의 생존 방식을 보여주는 소설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³⁾ 1920년대 문학에 등장하던 여성의 인물 유형에 비해 1930년대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의 변모는 실제 여성들을 둘러싼 현실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실감케 한다.⁴⁾ 특히 도시의 삶을 문제 삼고 있는 구인회의 작품들에서도 역시 도

2) 이경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외국문학』 제 31호 (외국문학, 1992).

김성곤,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31호 (외국문학, 1992).

3) 1930년대 여성소설에서도 1920년대 여성 소설에서 제기했던 여권쟁취의 테마가 퇴색하고, 현실적인 빈곤의 문제가 중심적인 주제로 등장한다. 정영자, 「한국페미니즘 소설의 계보」, 『문학정신』, 가을호 (문학정신, 1991).

4) 1920년대는 3.1 운동 이후 들어온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해 여성운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이나 태업을 강행하기도 했으며, 기생들이나 여급들도 자신의 처우를 위해 쟁의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의 여성 운동 활동은 근우회의 해체를 기하여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 문화적 현실은 문학작품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영정, 「한국근대의 여성운동」, 『여성학』(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최숙경(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여성 인물 유형 연구 III : 3·1 운동이후부터 해방까지」, 『이화여대 여성학 논집』 제 10호 (1993).

시 하층 여성의 삶이 많이 나타난다.⁵⁾ 1930년대 소외자로서 룬펜 인텔리의 전형이었던 구인회나 시인부락의 동인들은 도심을 배회하는 것을 그들의 일과로 삼았는데, 그들은 카페와 술집을 전전하며 문학과 인생, 당대 현실에 대한 토론으로 시간을 보냈다.⁶⁾ 때문에 그들은 윤락 여성들과 자주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이런 경험은 그들의 작품에 일정하게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었다. 이것이 오장환에게는 기생이나 매춘부에 대한 관심과 그런 여성을 양산하는 타락한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한편 동시대에 시를 통해 여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은 거의 없다.⁷⁾ 이는 카프의 침체 이후 시문학의 **향방**이 모더니즘과 순수문학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당대의 현실적 국면이 시를 통해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 문제를 통해 당대의 식민지의 현실과 문명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오장환의 시작(詩作)은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인으로서 오장환의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은 세계의 문명과 풍속 비판을 다룬 김기림의 시보다 더 현실적이다. 오장환은 조선의 도시문명을 경험하면서 단순한 문화충격으로서의 맹목적인 지향을 견제하면서, 그런 변화에 내재하는, 부정적 가치들을 구체적인 현상들을 통해 비판하고

5) 구인회 회원이었던 김유정, 이태준, 이효석의 많은 소설이 도시와 농촌을 배경으로 가난 때문에 몸을 파는 여성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박태원의 『천변 풍경』에도 역시 가난 때문에 기생의 길로 접어드는 여성들이 나온다. 이외 이상의 소설 역시 남편의 묵인하에 생계를 꾸리기 위해 매춘을 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최혜실, 「경성의 도시화가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소설에 미친 영향」, 『서울학 연구』제 9호 (서울 시립대 서울학 연구 1998), 김종건, 「소설의 공간 설정과 작가의식의 상관성 연구」, 『대구 어문 논총』 제 15집, (1997)

6) 최혜실, 앞의 글

7) 정순진, 「이용악의 시세계 - '팔려간 여성'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여성주의 비평』(국학자료원, 1992) 이 글은 이용악의 작품 중 팔려간 여성의 모티프가 드러나는 작품을 통해 당대 여성에 관한 이용악의 문제의식과 시적 성취를 분석, 평가하고 있다.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오장환의 1930년대 시에 등장하는 여성의 인물 유형에 주목하면서 그의 시가 당대 여성의 삶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고찰할 것이며, 그런 여성의 삶이 당대의 어떤 현실과 맞물려 있는가, 그리고 그가 윤락 여성의 삶의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려 했던 시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규명하려 한다.

2.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여성

1920년대 이후 일제의 산미 증식 계획에 의해 터전을 잃은 이농민들은 많은 수가 도시 근로자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여성 역시 생존을 위해 공장 노동자로 나서야 했는데, 여성 노동자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⁸⁾ 그러나 임금은 일본인 여자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작업 환경은 더욱 열악했다. 더군다나 1930년대 공장의 관리직, 기술직, 감독직의 62.3%는 일본 남성들이었으므로 여성 노동자에 대한 감독의 부당한 대우는 민족 차별과 동시에 성차별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⁹⁾

그러나 모든 여성이 다 공장 노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장의 응모 자격에 文字 解讀者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하니 기층 사회의 무식한 여성에게는 여공이 되는 것도 역시 힘들었다.¹⁰⁾ 따라서 하층 여성들의 경우 생계를 위해서 매춘을 쉽게 선택하게 되었는데, 더군다나 1916년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공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됨으로써 기층 여성들을 흡

8) 1925년에는 공장 수 4238개소에 80,375명의 종업원이 있었는데, 이중 여직공의 비율은 25%였다. 그러다 1931년에는 30%로 증가한다. 이효제, 「일제 하의 한국여성노동문제 연구」, 『한국근대사론3』, (지식산업사, 1972) pp.92~142.

9) 최숙경(외), 앞의 글.

10) 송연옥, 「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 도입」,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수하면서, 면허 없는 사창과 더불어 매춘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반에 이르는 사이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식민지 조선 역시 실업과 불황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생계의 수단으로 매춘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결과 1924년에 약 3,500명이던 기생, 창기, 작부의 수가 1932년에는 약 5,200명으로 증가했다.¹¹⁾

한편 1920년대 일제의 문화정치는 타락한 일본적 생활 양식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호색적인 일본의 풍속, 자유방임적, 데카당적 사조의 유입 등으로 성해방, 성생활의 자유화가 급속히 만연되었다.¹²⁾ 때문에 이런 사회,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매춘업의 성장과 함께 여성의 성과 육체에 대한 폭넓은 상업적 관심이 확산되었다. 이런 변화는 1920년대 말 서울 거리의 광고 간판 그림의 70, 80%가 꽃 아니면 여자라는 현실로 나타난다. 이때 이미 여성은 자본을 매개하는 이미지로서 광고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서구문화의 도입과정에 따른 서양화에 등장하는 여인의 나체상이 술집이나 구둑방에 걸림으로써 자본주의 소비 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은 성적 대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의 경우 소비문화와 향락산업에 기생하는 많은 매춘 여성들이 카페에 속해 있었다. 1920년대부터 현대적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서울은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었으며,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등장한 카페가 현대인의 변태적 기호에 맞추어 향락을 준비해주는 공개화된 성적 서비스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¹³⁾ 이를 통해 가난한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특히 하층 여성들의 경우, 1930년대의 근대화 과정에서 유교적 가부장제의 폐습에서 벗어나

11) 정진성,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여성 노동의 변모」, 『한국여성학』제4집, (한국여성학회 1988).

12) 김진송, 『서울에 만스흠을 許하라』(현실문화연구, 1999) p.292.

13) 박로아, 「카페의 情調」, 『별건곤』(1929년 9월호).

기도 전에 식민자본주의의 성적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¹⁴⁾

1) 유교적 가부장제의 희생물로서의 여성

오장환이 타락한 도시 문명을 비판하면서, 그 안에 놓인 매춘 여성에 관한 시편들을 발표하는 시기는 1936년과 37년인데,¹⁵⁾ 같은 시기에 그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아래 놓인 여성의 삶에도 역시 주목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장환에게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이야말로 근대화의 파고를 보여주는 가장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우선 〈旌門〉에서 오장환은 ‘효부’와 ‘열녀’라는 유교적 폐습의 질곡 아래 놓인 여성의 삶을 비판적으로 시화(詩化)하고 있다.

열녀를 모셨다는 旌門은 슬픈 울 창살로는 음산한 바람이 스미어 들고 붉고 푸르게 칠한 황토 내음새 진하게 난다. 小姐는 고운 얼굴 방안에만 숨어 앉아서 색시의 한 시절 삼강오륜 朱宋之訓을 본받아왔다. 오 물레 잦는 할멈의 진기한 이야기 중놈의 과객의 화적의 초립동이의 꿈보다 선명한 그림을 보여줌이여. (중략) 소저는 참지못하여 목매이던 날 양반의 집은 삼엄하게 교통을 끊고 젊은 새댁이 독사에 물리라는 낭군을 구하려다 대신으로 죽었다는 슬픈 전설을 쏟아내었다. 이래서 생겨난 효부열녀의 정문 그들의 종친은 가문이나 변화하게 만들어보자고 정문의 광영을 붉게 푸르게 채색하였다.

〈旌門 - 廉洛·烈女不敬二夫忠臣不事二君〉 부분

오장환은 위의 시에서 효부 열녀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旌門이 당사자들

14) 1920년대 이후 교육을 받은 신여성층은 중산층으로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하층 여성들은 이와는 달리 심각한 생계난에 시달렸다. 이영정, 앞의 글 참조.

15) 오장환의 시들 중 도시 문명 비판과 매춘 여성에 대한 관심이 표출된 시들은 주로 1937년에 간행된 『성벽』에 실려있다.

의 삶을 얼마나 유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문의 입장에서는 그 정문은 광영과 변화의 상징이겠지만 시인의 눈에 그 정문은 다만 '슬픈', '음산한' 한 여성의 원혼이 깃든 조형물에 불과하다.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방안에 숨어 앉아 삼강오륜을 배우면서 한 시절을 보내야 한다. 그녀에게 세상에 관한 진기한 이야기는 '금기'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는 여성의 죽음에 유교적 가부장제는 효부, 열녀라는 헛된 명분을 부여하고 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유교적 명분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

오장환은 〈城壁〉이나 〈姓氏譜〉 등에서 근대적인 시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관습을 청산하고 올바른 전통을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는데, 〈旌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씌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장환이 주목하는 여성의 유형은 봉건적 가부장제의 잔유물인 '기생' 들이다. 그들은 봉건시대부터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독특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던 오락과 유흥을 매개하는 화류인생이었다.¹⁶⁾

점잖은 사람 여러이 보이인 중에 여럿은 웃고 떠드나
 妓女는 호을로
 옛 사나이와 흡사한 모습을 찾고 있었다.

점잖은 손들의 전하여 오는 풍습엔
 계집의 손목을 만져주는 것,
 기녀는 푸른 얼굴 근심이 가득하도다.
 하얗게 훈기는 냄새
 분 냄새를 지니었도다.

16) 김진송, 위의 책, p.218.

옛이야기 모양 그짓말을 잘하는 계집
너는 사슴처럼 차디찬 슬픔을 지니었고나
한나절 태극선 부치며
슬픈 노래, 너는 부른다
좁은 보선 맵시 단정히 있어
무던히도 총총한 하로하로

(중략)

순백하다는 소녀의 날이여!
그렇지만
너는 매운 회차리, 허기진 禁食의 날
오 끌리어 왔다.

슬픈 교육, 외로운 허영심이여!
첫사람의 모습을 모두 속에 찾으려 헤매는 것은
밀써 첫사람은 아니라
없어진 옛날로의 조각진 꿈길이니
바싹 말른 종아리로
시들은 花心에
너는 향료를 물들이도다.

〈月香九天曲 - 슬픈 이야기〉 부분

당시 기생이 되는 길은 주로 12, 3세때 부모가 돈을 받고 노파에게 양녀로 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소녀는 양모의 집에 기거하면서 권번에 들어가 춤과 노래 등을 배우는 고된 수업을 치르었다. 15, 6세가 되면 양모의 주선으로 돈 있는 남자를 골라 머리를 엮었고 그때부터 기생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해지면서는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부모, 형제, 또는 남편 등 타의에 의해 팔려온 경우가 허다했다.¹⁷⁾ 때문에 하층민의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딸이 팔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위의 시에서도 역시 기생의 지난한 삶이 드러나 있다. ‘꼴리어’ 온 신세로 회초리와 금식을 견디면서 바삭 마른 종아리로 총총한 하로하로를 보내고 있는 기녀는 바로 당대 현실에 놓인 기생들의 삶을 대변해 준다. 옛 사나이를 찾고 있다는 기녀의 슬픔이 다소 낭만적인 정조를 자아내기도 하지만 결국 시의 후반부에서 옛사람을 찾는 일이 바로 잃어버린 꿈을 찾는 것과 동일화되면서 기녀가 지나간 버린 순백의 소녀 시절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은 남성의 놀이개로 살아가야 하는 기녀의 슬픈 운명을 강조하기 위해, 대조적으로 그녀의 이미지를 시슴같고, 차갑고, 단정한 여성으로 그리고 있으며, **답답하고도** 차분한 어조로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때문에 기생의 삶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보다는 연민과 슬픔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읽힌다.

1930년대 이후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기생들은 도시의 서비스업인 카페나 바 등으로 다시 흡수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직업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식이 일반 여성들에 비해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현대적 직업에 대한 거부감이 덜했기 때문이다.¹⁸⁾

2) 식민 자본주의의 상품으로서의 여성

은천지에는 하로에도 몇 차례 은빛 자동차가 드나들었다. 늙은이나 어린이나 젊장은 신사는, **꽃같은** 계집을 음식처럼 싣고 물탕을 온다. 젊은 계집이 물탕에서 개고리처럼 떠 보이는 것은 가장 좋다고 늙은 상인들은 저녁 상머리에서 떠들어댄다. 움쟁이 팜쟁이 가진 각색 더러운 피부병자가 모여든다고 신사들은 두덜거

17) 최혜실, 앞의 글.

18) 김진송, 위의 책, p.220.

리며 가족탕을 선약하였다.

《溫泉地》 전문

위의 시는 식민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부르조아들의 육체적 환락과 타락한 욕망의 유희를 보여준다.¹⁹⁾ ‘늙은 상인들’이 ‘은빛 자동차’를 타고, 젊은 여성들을 마치 음식처럼 싣고 오는 풍경을 통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상품화되어 가는 여성의 육체와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온천지를 찾아 오는 육체는, 늙은 상인들의 탐욕스러운 욕망의 집결지로서의 육체든가, 아니면 육체와 성을 팔아야하는 상품화되고 물화된 육체, 그렇지 않으면 온갖 피부병이 걸린 육체들이다. 당대 사회에서 온천지 개발의 이면에는 이처럼 퇴폐적이고 병든 육체의 욕망이 놓여있었다.

‘꽃같은 계집’과 대비되는 ‘늙은 상인’의 존재는 여성의 젊은 육체에 대한 속물적 욕망, 그리고 이런 욕망을 가능케 해주는 자본의 위력을 실감케 해준다. 여성의 육체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남성의 시선 앞에서 전시되어, 그들의 시각을 즐겁게 해주고 기호에 맞게 팔려 간다. 여성의 육체와 성은, 이런 매매행위를 통해 ‘음식처럼’이라는 비유가 드러내듯, 남성의 굶주린 욕망을 일회적으로 채워주는 존재로 비하된다.

오장환은 비판적인 어조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온천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적으로 차분하게 서술하고 있다. 시에 진술된 내용에 대한 시인의 이런 냉담한 태도가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해준다. 사건에 대한 시인의 거리감이란 바로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온천지에서는 이런 종류의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육체가 필요한 수요자가 있고 생존을 위해 자신의 성을 기꺼이 팔아야 할 공급자가 있었기에 이런 현실은 비밀비재했을 것이다.

이처럼 여성 육체와 성의 매매는 식민자본주의 하에서 성장하는 화려한

19) 오성호, 앞의 글.

도시의 뒷골목에서도 역시 성행한다.

전당포에 고물상이 지저분하게 늘어난 골목에는 가로등도 켜지는 않았다. 조금 높드란 鋤道도 깔리우지는 않았다. 조금 말쑥한 집과 조금 허름한 집은 모조리 **충충**하여서 바짝바짝 친밀하게는 늘어서 있다. 구멍 뚫린 속내의를 팔러 온 사람, 구멍 뚫린 속내의를 사러 온 사람. **충충**한 길목으로는 검은 망토를 두른 쥐정꾼이 비틀거리고, 인력거 위에선 車와 함께 이미 **하반신**이 썩어가는 기녀들이 비단 내음새를 풍기어가며 가느른 어깨를 흔들거렸다.

〈古典〉 전문

위의 시는 변화한 밤거리의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침침하고, 음침한 도시의 뒷골목을 그리고 있다. 화려함보다는 그 이면에 놓인 도시의 퇴폐와 타락을 통해 시인은 당대의 현실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1920년대부터 점차로 진행되었던 빈곤층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인해 1930년대에는 도시빈민층의 수는 급속히 늘어났다. 그들은 도시에서 최하층의 노동생활을 하면서 생존을 영위해 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농촌의 현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굶어죽을지언정 도시를 떠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시하층민들은 도시의 뒷골목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였고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고물상, 카페 종업원, 기생, 버스 차장, 행랑살이 등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²⁰⁾ 특히 여성의 경우 남편이 있더라도 생계를 위해 윤락을 해야했다.

위의 시는 이러한 하층민들의 **압박한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 시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 첫째는 전당포와 고물상이 늘어서 있는 뒷골목의 생김새 묘사, 둘째는 속내의를 팔고 사는 행위, 셋째는 몸을 팔러 가는 기녀들의 모습이다. 이 세 부분은 모두 팔고 사는 행위로 수렴되는 한 공간

20) 김중건, 앞의 글.

안에 존재한다. 우선 전당포와 고물상은 물건과 돈이 교환되는 장소로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장소이다. 그런 뒷골목에는 구멍 뚫린 내의라도 팔아서 생존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런 내의라도 사서 입어야 하는 가난한 하층민의 삶이 존재한다. 이런 공간에서 기녀들은 자신의 육체와 성을 팔러 간다. 가난한 여성들에게 팔 것이라곤 자신의 육체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외관은 비단 내음새를 풍길지 모르지만 그녀들의 몸은 썩어가고 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에 기층민의 열악한 현실이 놓여 있다는 인식은 여성들의 육체가 비단에 가려 있긴 하지만 수탈당하고 매매됨으로써 부패한 불모지가 되어 간다는 인식과 맞물린다.

그러므로 오장환에게 부패한 도시 문명과 썩어가는 여성의 육체는 함께 등장한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적 도시의 현실 논리가 극단까지 이른 것이 매음이라 할 때, 매춘부의 육체야말로 상품화되고 물화된 것으로 그 사회의 퇴폐를 가장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몸' 이기 때문이다. 이때 오로지 타인의 쾌락을 위해 매매되는 육체는, 성을 매개로 하는 인간적인 관계성을 상실한다.

푸른 입술, 어리운 한숨, 음습한 방안엔 술잔만 흰하였다. 질척질척한 풀섶과 같은 방안이다. 亂花植物과 같은 계집은 알 수 없는 웃음으로 제 마음도 속여 온다. 향구, 향구, 들리며 술과 계집을 찾아다니는 시꺼먼 얼굴. 윤락된 보헤미안의 절망적인 心火 - 퇴폐한 향연 속, 모두 다 오줌싸개 모양 비척어리며 얇게 떨었다. 괴로운 분노를 숨기어가며 …… 젓기슴이 이미 싸늘한 매음녀는 파충류처럼 포복한다.

〈賣淫婦〉 전문

위의 시는 매음부와의 성 행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 성적 욕망이 분출되는 공간과 행위는 매우 음습하고도 절망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 분위기는 직접적으로 '푸른', '한숨', '음습한', '질척질척한', '절망', '퇴폐한', '싸늘한', '파충류' 등의 시어에서도 드러난다. 육체를 매개로 하는 두

인물은 관능적 열망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쪽은 절망적인 心火로 한 쪽은 괴로운 분노로 서로를 속여가며 육체를 교환한다. 시인은 두 육체의 교환이 비인간적이고, 물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차갑고 음습한 분위기를 강조하며, 여성의 육체를 파충류로 비유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육체가 가진 풍요로운 의미보다는 차갑고 비정한 인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시인에게 매음녀는 생명성을 상실한 푸른 입술, 한숨이 어린 얼굴,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도 남성을 향해 웃어야 하는 비인간적인 존재로 비쳐진다.

이처럼 오장환은 파충류로 비유되는 매음부에게서 극단적인 비정함을 느낀다. 이는 첫째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초연해야 하는 그들에게서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는 돈을 주고받으며 교환하는, 물화된 관계란 진정한 생명성을 상실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매음부의 성이란 불임을 강요받는 성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들의 성이 잉태나 생명과 관련되었을 때의 비극성을 오장환은 깨닫고 있다.

소도시의 웨이트레스 마리아는 아모도 없는 별장에서 저 홀로 눈물지운다. 오늘도 건너편 언덕의 목장에서는 늙은 목동이 우유병을 자전거에 싣고 찾아왔었다. (중략) 마리아에게 産氣가 있는 날 먼곳에서 산파는 인력거를 타고 찾아 왔었다. 그리고는 三七日이 채 지나지 않아 늙은 목동이 어린 아가를 안고 건너편 언덕으로 가버리었다. (중략) 마리아가 비인 방안에 램프를 돌고 웃목에 앉어, 이제는 다시 슬픈 사치에로 길을 옮기려 할 때 화장을 하는 그의 곁에는 가을이 깊고, 쌀쌀한 바람이 일고, 이미 철늦은 마리아의 모시초마엔 치위를 이기지 못하는 나어린 귀뚜리가 주름폭 사이로 뛰어들었다.

〈마리아〉 부분

위의 시는 소도시의 접대부 여성인 마리아를 등장시켜, 윤락 여성의 비극적인 삶의 일단을 보여준다. 접대부로 일을 하다 아이를 갖게 된 나이 어린,

병든 산모는 아이를 낳기 위해 격리되어야 하며 아이를 난 후에 다시 접대부로 돌아가야 한다. 매춘 여성의 경우 이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아이를 갖고, 낳는 일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비밀에 붙여지는데, 한편으로 이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력을 낭비하고, 자신의 이익을 손해보는 일로 간주된다. 시인은 이런 여성의 서러움과 쓸쓸함을 다소 긴 산문시로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성을 팔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내용- 질병, 반복되는 출산, 성적 착취 등을 전달해주고 있다.

3) 불모의 현실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여성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일제 파시즘의 강화로 조선의 현실은 날로 열악해졌다. 1930년대의 상황은 1920년대를 특징지었던 자발성과 낙관주의가 사라지고 비관적인 염세사상이나 순간적인 향락생활이나 현재의 세상을 저주하는 음악이 유행했고, 모든 예술적 유형은 자멸적이고 타락적이었다.²¹⁾ 미래와 역사에 대한 회의는 삶의 생명성을 소진시키고 체념과 권태를 낳았다.

오장환 역시 사회와 역사 속에서의 갈등, 자의식의 갈등에서 오는 상실감과 무력감에 대한 반발로 씨 술, 도박, 씨움, 매춘, 미약 등의 위악적 행동을 드러낸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극단적인 방황과 퇴폐로 몰고 가려 하는데, 이 극단의 밑바닥에 매음을 하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이때 그는 자신 뿐만 아니라 매음을 하는 여성들까지도 위악적이고 퇴폐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²²⁾

21) 김영일, 「한국 근현대사에서 근대성의 경험과 근대주의」, 『현대사상』 (1997 여름호).

22) 오장환 시에 나타나는 매음부의 이미지는 보들레르의 영향을 짐작케 한다. 서구의 데카당스 시인들에게 창녀에 대한 동정은 곧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이해와 맞물린다. 즉 창녀는 사회적으로 뿌리뽑힌 자요, 쫓겨난 자이며, 사랑의 제도적인 형태에도 반항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자연적인 정신적 형태에도 반항하는 반역자들이다. 그들은 감정의 도덕적 조직을 파괴하며 나아가 그 근거까지 파괴한다. 창녀는 걱정의 와중에서도 냉정하고 언제나 자기가 도발시킨 쾌락의 초연한 관객이며 남들이 황홀해서 도취에 빠질 때에도 그녀는 고독과 냉담을 느낀다. 따라서 창녀에게 보

계집아 술을 따르라.
 잔잔이 가득 부어라!
 자조와 절망의 구렁이에 내 몸이 몹시 흔들릴 때
 나는 구토를 했다
 (중략)

환각의 도시, 불결한 하수구에 병든 거리여!
 얼마간의 돈푼을 넣을 수 있는 죄그만 지갑,
 유독식물과 같은 매음녀는
 나의 소매에 달려어 있다.
 그년은, 마음까지 나의 마음까지 훤히 놓고서
 이유없이 웃는다. 나는
 도박과
 싸움,
 흐르는 코피!
 나의 등가죽으로는 뺏가죽으로는
 자폭한 뽀헤미안의 고집이 시루죽은 빈대와 같이 쓸쓸 쓸기어다닌다.
 (중략)

이는 데카당스 시인들의 이해심은 감정과 운명의 이런 공통성에서 생겨난다. 시인들은 창녀들을 통해 자기들이 어떻게 몸을 팔고 어떻게 자기들의 신성한 감정을 희생하며 또 얼마나 값싸게 자기들의 비밀을 팔아 넘기는 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장환 역시 시인으로서 식민자본주의에 기생하며 자신의 글을 팔고, 감정을 파는 자신의 생활이란 결국 원하지 않아도 돈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하는 창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그런 자신에 대한 가학적 인식은 윤락 여성을 바라보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아르놀트 하우저, 백낙청·염무웅 옮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4』 (창작과 비평사, 1999) pp.226~27.

陰狹한 씨내기, 사탄의 落倫.

너의 더러운 껍데기는

일즉

바닷가에 소꿉노는 어린애들도 주워가지는 아니하였다.

〈海獸〉 부분

따라서 오장환은 매음녀를 ‘계집’, ‘유독 식물’, ‘그녀’, ‘똥똥한 계집의 배때기’ 등 다른 시편들에 비해 거친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다. 위의 시에서 시적 자아는 불안과 자조와 절망의 구렁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구토와 자학은 그런 자신에게 매달리는 윤락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한편 시인은 매음녀들에게서 삶의 또 다른 방식을 보게 된다. 즉 생존을 위해서는 윤리나 도덕에 냉정해야 하며, 철저히 사악해져야 하며, 인간적인 감정을 버리는 것이다. 즉 자신의 무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보다 우월한 형태의 사악함을 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시에서 술과 도박, 마약, 폭력을 일삼으며, 자신의 존재를 쓰레기(씨내기)와 사탄, 더러운 껍데기로 인식한다.²³⁾ 때문에 악마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여성은 퇴폐의 극난으로 치닫고 싶어하는 시적 자아의, 욕망의 누사불에 다른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속이며 물화된 육체를 매매하는 여성, 썩어가는 육체를 가진 여성은 오장환의 타락하고 부패한 욕망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위의 시에서 ‘병든’ 도시와 거리, 어둡고 음침한 환각의 도시는 퇴폐적이고 병적인 욕망의 집결지로 등장한다. ‘킴킴함’, ‘시푸른’, ‘불결함’, ‘유독’ 등의 수식어는 병든 도시와 육체를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사람은 저 빼놓고 모조리 김승이었다”라고 부제를 붙인 위의 시는 김승으로 전락한 퇴폐적

23) 시에서는 항구, 계집 등을 포함하여 음험한 씨내기, 사탄의 낙윤, 더러운 껍데기 등이 ‘너’로 표현되고 있지만, 시의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시적 자아인 ‘나’가 이 모든 대상을 포괄하고 있다.

이고 음습하고 더러운 삶의 현장을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그 거리에는 아편을 맞으며 생명을 영위하는 젊은이와 불임의 성을 팔아야 하는 매음녀가 등장한다. 때문에 이들의 육체적 관계는 생명의 잉태와는 거리가 멀다.

나요. 오장환이요. 나의 곁을 스치는 것은, 그대가 아니요. 검은 떡구렁이요. 당신이요.

외양조차 날 닮았으면 얼마나 기쁘고 또한 신용하리요.

이야기를 들리요. 이야길 들리요.

비명조차 숨기는 이는 그대요. 그대의 동족뿐이요.

그대의 피는 거뭇다지요. 붉지를 앓고 거뭇다지요.

음부 마리아 모양, 집시의 계집애 모양,

당신이요. 충충한 아구리에 까만 열매를 물고 이브의 뒤를 따른 것은 그대 사탄이요 차디찬 몸으로 친친이 날 감어주시오. 나요. 카인의 未齋요. 병든 시인이요. 뺨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능금을 따먹고 날 낳았소

오장환 <不吉한 노래> 부분

<매음부>에서 파충류로 묘사되고 있는 여성은 위의 시에서 ‘뱀’으로 전이되고 있다. 오장환에게 뱀은 관능성보다는 악마적인 상징으로 드러난다. 뱀이 가진 침묵의 잔인함, 알 수 없는 미끄러짐, 차가운 감촉 등은 죽음과 파괴의 상징으로 보여진다.²⁴⁾ 이는 시에서 뱀이 ‘검은’, ‘떡구렁이’, ‘거뭇다지요’, ‘충충한’, ‘까만’ 등의 시어로 수식되고 있음에서도 느껴진다. 붉은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면 검은 피는 불순함과 죄의식, 죽음 등을 떠올리게 한다.

일반적으로 뱀의 육체가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기 때문에 생명과 부활을

24) 이지자·올리비에리·스쿠트릭, 장영수 옮김,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청하, 1989) p.303.

상징함으로 볼 때²⁵⁾ 생명성은 관능적인 육체성을 통해 현현된다. 그런데 오장환이 뱀의 생명성을 간직한 관능의 육체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인이 뱀의 육체, 나아가 여성의 육체에서 읽어내려는 것이 생명력이기보다는 파괴와 죽음에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인은 여성의 육체에서 관능성과 생명성을 사상시키고 퇴폐성과 죄의식을 남겨놓고 있다.

그래서 여성은 ‘음부’인 마리아로, 자신은 카인의 말예로 비유된다. 시인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녀요, 관능성이 제거된 여인인 마리아를 ‘음부’라고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음부’라는 단어가 환기시키고 있는 것은 관능성의 강조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생명성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관능적인 성의 매개없이 성령에 의해 생명을 잉태시킨 인물이다. 그녀의 상징은 영원한 생명이요, 삶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상징 위에 ‘음부’를 덧씌웠을 때 오히려 마리아가 가진 풍요로운 생명성은 소진되고 ‘음부’가 가진 관능성이 보태지지만 이때의 관능은 생명과 연결되기보다는 오히려 퇴폐성을 환기시킨다. 그래서 마리아의 육체는 관능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퇴폐적이고 거칠고 메마른 몸으로 다가온다.

이 시에서 ‘능금’은 기독교적 의미에서 선악의 지혜를 의미한다기보다 오히려 성적인 심상과 죄의식을 환기시킨다.²⁶⁾ 부모 역시 금기를 깨고 성적 욕망에 의한 부산물로 자신의 육체를 만들었다는 퇴폐적 자의식과, 더 나아가 자신은 카인의 말예이고 죄인이며, 병든 시인이라는 무력한 자의식은 역사와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자화하는 시인의 의식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이기에 사탄의 육체, 차디차고 음습한 육체와의 ‘불길한’ 관계 역시 가능하지 않느냐는 위악적인 몸짓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그가 관계 맺는 육체는 다름 아닌 불모의 성을 가진 ‘음부’이다. 그러므로 그의 관계는 생명성을 상실한 불모의 이미지를 낳는다.

결국 오장환은 병든 현실을 강조하고 또 그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의 존재

25) 진 쿠퍼, 이윤기 역, 『세계문화 상징사전』, (까치, 1994), pp.354~57.

26) 오성호, 앞의 글.

론적 비극성을 드러내기 위해 생명력을 상실한 여성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퇴폐적이고 악마적인 불모의 여성 이미지는 당대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 주려하기보다는 그런 현실을 깨닫는 시인 자신의 비극적인 내면 의식을 투사시키려는 욕망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3. 맺음말

1930년대의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오장환의 시는 당대 하층 여성들, 특히 윤락 여성들의 삶을 주목함으로써 구체성을 획득한다. 1930년대는 근대 사회의 초기로 여성에 대한 봉건적,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현대사상과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었던 시기이다.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신교육 이념이나 근대적인 사상에 의해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하층 여성들의 경우는 식민자본주의 하에서 시행되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오히려 생계를 위해 육체와 성을 팔아야 하는 성의 착취 대상으로 전락했다.

1930년대 후반 조선의 현실은 더욱 열악해져서 실업률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으며, 사회, 문화적 분위기는 미래 역사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채 체념에 빠져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대 도시 문명의 부패와 타락을 감지하는 오장환은 열악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수탈당하는 여성들의 삶에 주목한다. 그는 첫째, 유교적 권위와 도덕에 의해 희생당하는 여성들의 삶에 관한 비판적인 시를 발표함으로써 명분보다 소중한 여성의 인권을 강조한다. 둘째로는 식민자본주의의 도시문명 속에서 상품화되는 여성의 성과 육체를 통해 물화된 인간관계와 윤락 여성의 비참한 삶의 현장을 보여준다. 셋째는 생명력을 상실한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 당대 조선 현실의 불모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여성들의 삶을 통해 오장환이 비판하려는 것은 일제강점하에서의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전망 없음에서 비롯되는 생명력의 소진이다. 때문에 그는 이런 시적 작업을 통해 여성의

풍요로움이 상징하는, 진정한 생명성과 미래에의 전망을 희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벽』 이후 오장환의 작품에서는 윤락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작품이 거의 없다. 『성벽』은 이후 다른 시집들에 비해서 타락한 도시와 부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작품집이다. 바로 다음에 발표되는 『獻詞』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애상의 정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벽』은 오장환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시집이다. 여기서 시인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문제적인 현실의 큰 부분으로 여성 육체와 성의 착취가 놓여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는 문학사적으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필자 : 이화여대 강사

참고문헌

- 오장환, 최두석 편, 『오장환 전집 1, 2』, 창작과 비평사, 1989
-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許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 백 철, 『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7
- 김경숙, 「오장환 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경일, 「한국 근현대사에서 근대성의 경험과 근대주의」, 『현대사상』 1998 여름호.
- 김경일, 「한국근대 사회의 형성에서 전통과 근대」, 『사회와 역사』통권 제 54집 한 국사회사학회, 1998
- 김기림, 「오장환 시집 『성벽』을 읽고」, 조선일보, 1937.9.18.
- 김민수, 「오장환 시의 ‘근대성’ 연구」, 인하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성곤,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시대의 문학」, 『외국문학』제 31호, 외 국문학, 1992
- 김종건, 「소설의 공간 설정과 작가의식의 상관성 연구」, 『대구 어문 논총 제 15 집』, 1997
- 박로아, 「카페의 情調」, 『별건곤』1929년 9월호
- 박민수, 「오장환 시의 현대성」, 『현대시 사상』, 제 25호 고려원 1995
- 박윤우, 「오장환 시 연구 : 비판적 인식의 변모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 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박호영, 「오장환 시의 모더니즘적 특성」, 『강릉대 인문학보 9』, 1990
-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 사회상 연구』 일지사, 1996
- 송연옥, 「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 도입」,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오성호, 「『성벽』에서 『붉은 산』까지의 거리」, 『민족문화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4
- 이경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외국문학』제 31호, 외국문학, 1992

- 이봉구, 「『성벽』 시절의 장환, 『성벽』(재판), 이문각, 1947
- 이영정, 「한국근대의 여성운동, 『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 이재복, 「李箱 소설의 몸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효재, 「일제 하의 한국여성노동문제 연구」, 『한국근대사론3』, 지식산업사, 1975
- 임 화, 「시단의 신세대」, 조선일보, 1938.12.23-25.
- 정순진, 「이용악의 시세계 - '팔려간 여성'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여성주의 비평』, 국학자료원, 1992
- 정영자, 「한국페미니즘 소설의 계보」, 『문학정신』, 가을호, 문학정신, 1991
- 정진성,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여성 노동의 변모」, 『한국여성학』 제4집, 한국여성학회, 1988
- 조병춘, 「오장환의 시세계 연구」, 『문학 속의 서울』,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백문사, 1994
- 조해옥, 「근대인의 불안과 허무의식 - 오장환의 「성벽」과 「헌사」를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제 22호, 1997.
- 최두석, 「오장환의 시적 권력과 진보주의」, 『오장환전집 2』, 창작과 비평, 1989
- 최숙성(외), 「한국여성사 성립을 위한 여성 인물 유형 연구 III : 3·1 운동이후부터 해방까지」, 『이화여대 여성학 논집』 제 10호, 1993
- 최혜실, 「경성의 도시화가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소설에 미친 영향 『서울학 연구』 제 9호 서울 시립대 서울학 연구, 1998
- 아르놀트 하우저, 백낙청·염무웅 옮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4』, 창작과 비평사, 1999
-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장영수 옮김,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 청하, 1989
- 진 쿠퍼, 이윤기 역, 『세계문화 상징사전』, 까치, 1994

Abstract

Femininity in the view of barrenness under the
modern times of the colony in 1930s

– Focusing on Oh Jang – hwan’s poetry

Kim Jin – Hee

In the history of poetry, Oh Jang-hwan has been recognized as a poet who concretely criticized the corrupted social pathology under the colonial capitalism in 1930s with the themes of tradition and modernism, and city and culture. Accepting this evaluation, this study speciall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he critically viewed the life of the women who were parasitic on the then corrupted real state and urban culture and sold themselves for money for survival. He poeticized unfortunate life of the women who suffered from such condition as well as showed symbolically the actual state in the times, focused on the body of the women who became barren.

Therefore,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characters of the women who appeared in his poets, discusses the actuality implied by the life of the colonial times and his way of figuration, and ultimately looks into a poetic meaning which he was to emphasize, viewing life of the ill-fated women in the times.

The discussion is described as follows;

First, he emphasizes human rights of the women that are more valuable than justice by publishing the poets criticizing life of the women, who were sacrificed to the Confucian authority and morality. Second,

he shows the materialized human relationship and the real life of the miserable abandoned women, seeing sex and body of the women, who were sold for money in the colonial capitalism of urban culture. Third, he roused barrenness of the Josun Dynasty from the image of the women who lost their vitality.

In conclusion, Oh Jang-hwan lays emphasis on the destruction of vitality caused by the corrupted reality and the lack of outlook for the future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viewing such life of the women. Accordingly, it is understood that he, through such poeticization, longs for the true vitality and prospect for the future, which are symbolized as the richness of women.

Oh Jang-hwan suggests the exploited sex and body of women as one of the controversial facts under the Josun Dynasty of the colony in 1930s. As described in the above, the fact that the reality of women is expressed in poetry under the current of modernism and pure literature after the dissolution of KAPF is significant in the aspect of the history of literature.